

원저

中風에 대한 舍岩鍼法の 運用에 관한 文獻 연구

- 《舍岩鍼灸正傳》과 《東醫寶鑑》 및 《鍼灸大成》과의 비교연구 -

이정태 · 임윤경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a-am*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Stroke

Lee Jung-tae and Yim Yun-kyoung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methods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traditional acupuncture treatment and Sa-am acupuncture treatment of stroke. We investigated 《Sa-am chimgujeongjeon(舍岩鍼灸正傳)》 for Sa-am acupuncture treatment, and 《Dongeuibogam(東醫寶鑑)》 and 《Chimgudaesung (鍼灸大成)》 for traditional acupuncture treatment.

Results & Conclusion : 1. In the traditional acupuncture treatment, acupoints on CV, GV, GB, LI, ST meridians to remove pathogens such as fire, damp, phlegm, blood stagnation and Ashi points (nearby points) are often used rather than acupoints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excess & deficiency in organs and meridians.

2. In 《Sa-am chimgujungjeon(舍岩鍼灸正傳)》, symptoms of stroke are classified into 21 and each symptom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excess & deficiency of organs and meridians, consequently treated using tonification & sedation of corresponding meridians.

3. For the treatment of stroke in 《Sa-am chimgujungjeon(舍岩鍼灸正傳)》, tonification & sedation of the acupoints on related meridian is often omitted, using only the acupoints on targeted meridian.

4. In 《Sa-am chimgujungjeon(舍岩鍼灸正傳)》, empirical points are preferably used for the treatment of stroke.

Key words : Stroke, Sa-am acupuncture

I. 緒論

中風은 卒然昏仆, 不省人事하면서 口眼喎斜, 半身不隨, 言語不利를 主要症狀으로 하는 질환으로 서양의학에서는 急性腦血管病 或 腦卒中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를 急性血管原性 神經機能障礙의 疾病으로 보고 있다¹⁾.

舍巖鍼法은 《難經·六十九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를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木, 火, 土, 金, 水의 五行에 소속된 井, 榮, 俞, 經, 合의 경혈을 선택하여 自經과 他經의 보사를 겸하는 五行補瀉鍼法으로, 朝鮮時代に 韓國에서 創案된 固有의 鍼施術法이다. 舍巖鍼法은 舍巖先生에 의해 體系化 되어 五行鍼이란 名稱으로 보급되었으며, 《難經》의 治療原則에서 한 차원 더 발전하여 ‘虛則瀉其官, 實則補其官’의 理論을 發展시켰고, 變方을 잘 活用하여 證候의 變化에 따라 原則處方을 變化하여 應用하였다^{2,3)}.

安⁴⁾은 心勝格에 의하여 患者가 呼訴한 火病의 主要症狀이었던 上熱感, 不安, 胸悶, 呼吸困難 등에 顯著한 效果를 볼 수 있음을 報告하고, 朴⁵⁾은 腦卒中 患者에게 膀胱正格을 施術한 結果 血壓이 有意하게 低下되었음을 報告하고 있다.

著者는 臨床에서 中風에 대하여 舍巖鍼法을 活用하여 有意한 治療效果를 經驗하여 온 바, 이에 中風治療에 있어서의 舍巖鍼法의 活用을 體系의으로 整理할 必要性을 느껴, 《舍巖鍼灸正傳》을 爲主로 하여 中風에 대한 舍巖鍼法의 運用을 정리하고 《東醫寶鑑》과 《鍼灸大成》을 중심으로 한 中風의 傳統的 鍼灸治療와 比較 考察한 結果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 ① 中風의 舍巖鍼 治療는 《舍巖鍼灸正傳》을, 中風의 전통적 鍼灸治療는 《東醫寶鑑》 및 《鍼灸大成》을 기준으로 하였다.
- ② 각 病症에 대하여 먼저《舍巖鍼灸正傳》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東醫寶鑑》 및 《鍼灸大成》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 ③ “歷節風”과 “遍身痒如蟲行不可忍”은 《舍巖鍼灸正傳》의 “中風門”에 記載되어 있으나, 本論文의 의도와 관련성이 적어 除外하였다.

- ④ 引用한 文句는 “ ”로 表記하였다.

III. 本論

1. 風懿(卒中)

1) 《舍巖鍼灸正傳·中風》⁶⁾

見證: “갑자기 卒倒하여 人事不省이 되어 角弓反張이 나타난다” → 療法: “能治十宣”

2) 《東醫寶鑑·風門》⁷⁾

“忽然迷仆 舌強不語 喉中窒塞 噫噫有聲 謂之風懿(直指). 風懿者(一作懿) 卒倒 喎斜 不語 身軟有汗者 生 汗不出 身直者 死, 由痰水制火 閉塞心竅 而不語熱者 牛黃清心元 虛者 導痰湯. 風懿者 奄忽不知人 咽中塞窒然 舌強不能言 病在藏府 汗出身軟者 生 汗不出 身直者 七日死(得效)” → 鍼灸治療: “卒中風 喎斜 涎塞不省 宜灸聽會 頰車 地倉 百會 肩髃 曲池 風市 三里 絕骨 耳前髮際 大椎 風池 凡12穴(本事)”

3) 《鍼灸大成·券八·續增治法》⁸⁾

“凡初中風跌倒 卒暴昏沈 痰涎壅滯 不省人事 牙關緊閉 藥水不下… 又治一切暴死惡候 不省人事 及絞腸痧 乃起死回生妙訣” → 治法: “急以三稜針 刺手十指十二井穴 當去惡血”, “少商二穴 商陽二穴 中衝二穴 關衝二穴 少衝二穴 少澤二穴”

2. 風痲(中臟)

1) 《舍巖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中風의 裏證으로서 人事不省하고 가래와 늘침이 咽喉를 막아 咽喉에서 톱 커는 소리처럼 그렁거리고(曳鋸聲), 四肢不遂하며 身無疼痛, 言語蹇涉한다” → 療法: “關元, 氣海瀉. 又方; 關元, 灸 1,000 壯”

2) 《東醫寶鑑·風門》⁷⁾

“神智不亂 身體無痛 四肢不舉 一臂不遂 謂之風痺(直指)”, “痺之爲病 身無痛 四肢不收 志亂不甚 其言微知 可治 甚則不能言 不可治(仲景)”, “風痺者 緩者四肢不舉 急則一身皆仰 或左癱右瘓 或一臂不遂 智不能言者 難治”, “痺病 身無痛 手足不遂 而言瘖 志亂者 邪入于裏 卽東垣所謂 邪中藏也(綱目)” → 鍼灸治療: “中風痰盛 聲如曳鋸 服藥 不下 宜灸臍下 氣海 關元200-300壯亦可 轉死廻生 五藏氣絕 危證 亦宜灸之(綱目).” “神闕一穴 中風 不省人事 可灸百壯至五百壯卽甦(資生)”

3. 肝中(怒中)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無汗, 惡寒하며 顔色이 푸르다(靑)” → 療法: “肝實; 太衝補, 合谷瀉”

4. 心中(思慮中)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多汗, 怕驚, 顔色이 붉다(赤)” → 療法: “心實; 商丘補, 大敦瀉”

5. 脾中(喜中)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多汗, 身熱하며 顔色이 누렇다(黃)” → 療法: “脾虛; 少府補, 大敦瀉”

6. 肺中(氣中)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多汗, 惡風하며 顔色이 희다(白)” → 療法: “肺實; 太白補, 少府瀉”

7. 腎中(氣勞中)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多汗, 身冷하며 顔色이 검다(黑)” → 療法: “腎虛; 經渠補, 太白瀉”

8. 卒風不語

1)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별안간 中風으로 言語障戔가 나타난다”

→ 療法: “胃實; 三里迎後正, 二間補, 風池瀉, 陽谷瀉.”

2) 《東醫寶鑑·風門》⁷⁾

“失音不語” → 鍼灸治療: “宜鍼瘖門, 人中, 天突, 湧泉, 神門, 支溝, 風府(綱目)”

3) 《鍼灸大成·卷五·八脈圖並治症穴》⁸⁾

“中風不語” → 治法: “少商, 前頂, 人中, 臚中, 合谷, 啞門”

9. 角弓反張

1)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별안간 中風으로 角弓反張이 나타난다.” → 療法: “膽實; 三里迎, 陽谷補, 風池瀉, 束骨瀉”

2) 《鍼灸大成·卷五·八脈圖並治症穴》⁸⁾

“中風角弓反張, 眼目盲視” → 療法: “百會, 百勞, 合谷, 曲池, 行間, 十宣, 陽陵泉”

10. 眼戴上反不能言語

1)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별안간 中風으로 눈을 치켜 뜨고 말을 못한다” → 療法: “身柱(三椎), 神道(五椎), 灸各七壯補, 三里瀉, 各柱如棗核大”

2) 《東醫寶鑑·風門》⁷⁾

“中風 目戴上 不能視” → 鍼灸治療: “灸第二椎骨上各七壯 一齊下火 立愈(綱目)”

11. 流涎如浪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中風으로 粘性性 唾液을 줄줄 흘린다” → 療法: “八邪鍼/又方: 止涎穴”

12. 口噤痰塞

1)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입을 꼭 다물고 咽喉에 痰이 막혀서 曳鋸性이 난다” → 療法: “脾虛; 風池迎後正, 少府補, 大

敦瀉”(金)²⁴⁾ “風池迎正 勞宮橫, 少府補, 經渠補”

2) 《東醫寶鑑·風門》⁷⁾

“口噤 宜鍼人中 頰車, 百會, 承漿, 合谷, 翳風, 灸亦可(綱目)”

3) 《鍼灸大成·卷五·八脈圖並治症穴》⁸⁾

“中風口噤不并, 言語蹇澀: 地倉, 頰車, 人中, 合谷”

“中風口禁不開: 頰車, 人中, 百會, 承漿, 合谷, (俱宜瀉)”

13. 偏枯(中腑)

1)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中風の 表證으로서 半身不遂, 口眼喎斜하고 言語가 不變하며 痛症을 自覺한다” → 療法: “太衝補, 中腕, 風市瀉”

2) 《東醫寶鑑·風門》⁷⁾

“血氣偏虛 半身不遂 肌肉枯瘦 骨間疼痛 謂之偏枯(直指)”, “偏枯者 半身不遂 肌肉偏不用 而痛 言不變 智不亂 病在分腠之間 宜溫臥 取汗且巨鍼取之(仲景)” “...非病有言 變志亂之證 痿病則無之. 盖非病發又擊仆之暴痿病 發于怠惰之漸 明是兩疾也(綱目)” → 鍼灸治療: “治中風偏枯 大接經 從陽引陰 至陰與湧泉 中衝與關衝 竅陰與大敦 少商與商陽 厲兌與隱白 少衝與少澤”, “大接經 從陰引陽 少商與商陽 厲兌與隱白 少衝與少澤 至陰與湧泉 中衝與關衝 竅陰與大敦 凡此十二經 井穴也 羅謙甫 治趙僧判 中藏 刺十二井穴 愈 又治 張安撫 中藏 灸十二井穴 愈(寶鑑)” “大接經 治中風 偏枯 從陽引陰 從陰引陽 皆取十二經 井穴也(綱目)”

3) 《鍼灸大成·卷五·八脈圖並治症穴》⁸⁾

“中風偏枯, 疼痛無時” → 療法: “絕骨, 太淵, 曲池, 肩髃, 三里, 崑崙”

14. 膽中(驚中)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眼目이 牽連하고 코골며 意識이 깨어나지 않고 顔色에 綠色이 나타난다” → 療法: “膽虛:

通谷補, 商陽瀉.”

《圖解校勘舍岩道人鍼法》²⁴⁾ “膽虛: 通谷補, 委中瀉”

15. 中胃(食中)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飲食이 내려가지 않고, 痰이 끓어오르며, 淡黃色을 묻하는 證” → 療法: “胃虛: 陽谷補, 臨泣瀉”

16. 半身不遂

1)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 “言語을 더듬거리며(蹇涉) 半身不遂가 나타난다” → 療法: “心虛: 大敦補, 太白瀉.”

《舍岩鍼灸正傳·諸氣痛門》“喜氣緩 過喜傷心하면 心身不安하고 혹 心氣가 緩散不收하여 言語의 論理가 次例가 없고 舉止失常한다”⁶⁾

2) 《東醫寶鑑》⁷⁾

“半身不遂 宜灸百會, 顙會, 風池, 肩髃, 曲池, 合谷, 環跳, 風市, 三里, 絕骨(資生)” “半身不遂 環跳 爲要穴(綱目)”

3) 《鍼灸大成·卷五·八脈圖並治症穴》⁸⁾

“中風半身癱瘓” → 療法: “手三里, 腕骨, 合谷, 絕骨, 行間, 風市, 三陰交”

《鍼灸大成·卷九·治症總要》⁸⁾

“半身不遂, 中風” → 療法: “絕骨, 崑崙, 合谷, 肩髃, 曲池, 手三里, 足三里...其症再發. 再鍼前穴, 復刺後穴: 肩井, 上廉, 委中”

“中風, 左癱右瘓” → 療法: “三里, 陽谿, 合谷, 中渚, 陽輔, 崑崙, 行間...先鍼無病手足, 後鍼有病手足. 風市, 丘墟, 陽陵泉”

“陽症, 中風不語, 手足癱瘓者” → 療法: “合谷, 肩髃, 手三里, 百會, 肩井, 風市, 環跳, 足三里, 委中, 陽陵泉 (先鍼無病手足, 後鍼有病手足)”

“陰症 中風, 半身不隨, 拘急, 手足拘攣, 此是陰症也. 亦依治之, 但先補後瀉”

17. 口眼喎斜

1)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口眼이 비뚤어지고 눈을 감짝이지 못한 다” → 療法：“肝實；三里迎，完骨正，心海補，然谷瀉”（金）²² “肝實：三里迎，陽輔正，完骨斜，然谷瀉，少海補”

2) 《東醫寶鑑》⁷⁾

“卒中風 喎斜 涎塞不省 宜灸聽會，頰車，地倉，百會，肩髃，曲池，風市，三里，絕骨，耳前髮際，大椎，風池 凡12穴(本事)”

“口眼喎斜 宜灸聽會，頰車，地倉 又法 喎向右者灸左喎陷中 喎向左者 灸右喎陷中 各二七壯 立愈(綱目)”

3)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⁸⁾

“中風口眼窩斜，牽運不已” → 治法：“人中，合谷，太淵，十宣，瞳子膠，頰車”

《鍼灸大成·券九·治症總要》⁸⁾

“口眼窩斜，中風” → 治法：“地倉，頰車，人中，合谷…復刺後穴，無不效也。聽會，承漿，翳風”

“口眼窩斜” → 治法：“頰車，合谷，地倉，人中…復刺後穴：承漿，百會，地倉，瞳子膠”

18. 偏風口喎

《舍岩鍼灸正傳·中風門》⁶⁾

見證：“左便이나 右便만 半身不遂하고 口眼喎斜 한다” → 療法：“肝虛；勞宮補，照海，前谷，完骨瀉”（金）²⁴ “勞宮補 照海瀉 完骨瀉 前谷迎”

19. 기타 《東醫寶鑑·風門》⁷⁾에 기재된 中風의 鍼灸治療

1) “凡人 非時足脛上 及手食指次指忽痠疼 麻痺良久 方解 此將中風之候 急灸三里，絕骨各三壯 春秋報灸 常令兩脚 有灸瘡 爲妙《資生》”

2) “凡人不信 此法 不肯灸 忽然卒死 是爲謂何病? 曰風 入藏 故也. 風病者 不可不知《綱目》”

3) “凡覺手足 或麻或痛 良久乃已 此將風中府之候 宜灸百會，曲髻，肩髃，曲池，風市，三里，絕骨《資生》”

4) “凡覺心中憤亂 神思不怡 或手足麻痺 此將風中藏之候 宜灸百會，風池，大椎，肩井，曲池，間使，三里《資生》”

5) “治風七穴 百會，耳前髮際，肩井，風市，三里，絕骨，曲池. 一方 加有風池，合谷，肩髃，環跳 凡九穴《資生》”

6) “凡中風 皆灸之”

20. 기타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와 《鍼灸大成·券九·治症總要》⁸⁾에 기재된 中風의 鍼灸治療

1) 中風不省人事：中衝 百會 大敦 印堂 合谷

2) 中風四肢麻痺不仁：肘膠 上廉 人際 風市 膝陽關 三陰交

3) 中暑不省人事：人中 合谷 內庭 百會 中極 氣海

4) 中風不省人事：人中 中衝 合谷

IV. 考 察

中風이라는 名稱은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¹²⁾.

王冰의 《黃帝內經》에서는 中風의 發病原因을 人體가 外感風邪에 感하여 風病이 發病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風邪가 各各 臟腑에 침입하여 나타나는 病狀은 다르다고 認識하였다¹⁰⁾. 또,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風者百病之長也 至其變化乃爲他病也”라 하여 風邪가 諸病발생의 關係됨을 言及하였다¹⁰⁾. 張仲景의 《金匱要略》에서는 “主風論에 이르기를 賊風虛邪侵入으로 風이 發生한다 하였다”고 하였고,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에서는 半身不隨 및 痺症의 差異를 언급하고 病邪의 侵入程度에 따라 中絡, 中經, 中腑, 中臟으로 四大別하였다¹¹⁾.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에서는 “其爲病者藏於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其人經脈行於五臟者各隨臟腑而生病焉”라 하여, 外來風邪에 感하여 泄하지 못하고 經脈으로 入하여 五臟으로 行하면 五臟中風이 發病한다고 認識하였고, 諸風候를 約 59種으로 分類하였다¹³⁾. 以上 宋 以前 시대에는 中風을 外感風邪에 의한 것으로 認識하였다.

金元代에 이르러서는 金元四大家에 의하여 內生之風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어 中風의 病因說에 큰 轉變을 가져오게 되었다. 劉河間은 “主火論

曰 中臟者而加五色有表證 脈浮而惡寒拘急不仁或中身之候 或中身之前 或中身之側 皆曰中腑也 其治多易也 中臟者 脣吻不收舌不轉而失音 鼻不聞香臭耳聾而眼眊 大小便秘結皆曰中臟也 其治多難”이라 하여 주로 九竅 및 四肢의 症候로 中風의 輕重을 區分하였고, 心火와 精神의 衝擊으로 火가 盛하여 風이 發生한다 하였다. 河間의 이러한 中風에 대한 認識은 그의 主火說에 根據한 것으로, 中風이 外感風邪에 起因한 것이라는 以前의 理論과는 다르게 中風을 認識하여 中風治療의 劃期的 轉機를 마련하였다¹³⁾. 李東垣은 《醫經溯回集》에서 中風은 外來風邪에 依한 것이 아니라, 體內的 元氣가 不足하거나 情志의 失常으로 인하여 元氣를 損傷하여 風氣가 乘하는 疾病임을 밝혔다. 즉 元氣의 虛損이 中風의 原因이 된다고 言及하여 中風에서 內因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¹⁴⁾. 朱震亨은 《丹溪心法》에서 中風의 發生이 濕多한 氣厚의 地域的인 要因과 關聯性을 두고 濕의 氣運을 接觸할 때 風이 發生할 수 있음을 言及하였다¹⁵⁾. 以上의 三家說에서는 中風의 病因을 主火, 主氣, 主濕痰 등으로 各各 인식하고 있다.

龔延賢의 《萬病回春》에서는 “風中絡者則口眼喎斜”를 추가하여 中腑, 中血脈, 中臟, 中絡으로 四大 區分하여 中風의 病理를 論하였으며, 中風은 大개 人體의 正氣가 虛弱할 때 七情의 損傷이 있거나 酒色過度시 發生한다고 하였다. 또한 濕生痰 痰生熱 熱生風 風生火로 區分하여 中風症의 病理를 설명하였다¹⁶⁾. 李梴의 《醫學入門》에서는 “邪氣가 入經하면 癱瘓하고 入絡하면 膚頑하고 入腑하면 不識人하고 入臟하면 舌強吐水한다”하였으며 “眞中者는 風邪만을 最急性으로 感受한 것이다”고 하였다¹⁷⁾. 周命新의 《醫門寶鑑》에서는 中風分類의 臟腑俱中者를 追加하여 中腑, 中臟, 臟腑俱中, 中血脈, 中經脈으로 五大 分하였다, 中風의 病因은 陰陽肝亢卑症이라 하였다¹⁸⁾. 程國彭은 《醫學心悟》에서 中臟을 다시 “閉者 牙關緊急 兩手握固 脫者 口張心絕 眼合肝絕 手撒脾絕 聲如鼻干肺絕 遺尿腎絕汗出如珠”라 하여 閉證과 五臟絕候인 脫證으로 二分하였다¹⁹⁾. 葉天士는 生理의 特性에 대한 認識으로 內風은 바로 몸 속의 陽氣가 變動한 것으로 정의하며 血虛, 肝腎虛, 怒傷肝, 肝氣犯胃, 怒傷精, 年老而虛風動, 陽明脈絡虛, 熱盛動風, 時令不調가 內風動越의 原因이 됨을 認識하였다²⁰⁾.

이와 같이 中風의 病因은 《內經》以來 唐宋 以前에는 주로 外來風邪, 內虛邪中の “外風”說이 主張

되었으나, 唐宋 以來 특히 金元時代 以後에는 火, 氣, 濕熱, 瘀血 등을 原因으로 보는 “內風”說이 主張되었다. 病邪의 侵入程度에 따라 中絡, 中經, 中血脈, 中腑, 中臟, 臟腑俱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醫學心悟》에서 中風의 五臟絕候를 提示하기는 하였으나 鍼灸治療에 적극 活用되거나 諸 症狀에 全般的으로 臟腑辨證을 活用하지는 않았다.

中風에 대한 治療는 金元時代를 分岐點으로 하여, 그 以前에는 “外風”에 대하여 發汗祛風시키는 方法이 爲主가 되었으나, 金元時代 以後에는 各各의 醫家들마다 滋陰潛陽, 平肝熄風, 通腑化痰, 活血通絡, 清熱除煩, 健脾利濕, 益氣養血 등 다양한 治療原則들을 提示하고 있다. 여기에서 平肝熄風, 健脾利濕 등 若干의 臟腑辨證이 導入되기도 하였으나 大개 火熱, 濕痰, 瘀血 등의 邪氣를 除去하는 것을 治療目的으로 하여 選穴하는 경우가 많았다.

舍岩은 약 420年 前 朝鮮 光海君代에 生存한 僧醫로 추측되며 姓名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단지 號를 舍岩이라 하였고, 石臼에서 득도하여 俗名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四溟堂松雲大師의 弟子로만 알려져 있다. 舍岩鍼法은 舍岩 先生에 의해 體系化 되었고 임진왜란을 전후로 일본에 건너가서 五行鍼이란 名稱으로 보급되었다²¹⁾.

舍岩鍼法의 理論은 그 根據를 難經에 두고 있는데, 이는 즉 ‘虛하면 母를 補하고, 實하면 子를 瀉한다(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는 原則이다. 여기에서 舍岩鍼은 《難經》의 治療原則보다 한차원 높은 方法을 發展시켰으니 즉, ‘虛則補其母’原則에 ‘瀉其官’理論을 추가하여 發展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肝이 虛하면 補其母하고 더하여 肝木의 官에 해당하는 肺金의 經渠와 肝木의 金穴인 中封을 瀉하는 것이다. 반대로 實하면 ‘實則瀉其子’原則에 추가하여 ‘補其官’하니 예를 들어 肝이 實하면 瀉其子하고 더하여 肺金의 金穴인 經渠와 肝木의 金穴인 中封을 補한다.

또한 舍岩鍼法은 變方을 잘 活用하였는데, 이는 正세의 變化에 따라서 原則處方을 變化시키는 ‘應用處方’이라고 할 수 있다. 金은 이들 變方을 A, B, C로 區分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肝虛症의 正形은 補水瀉金이지만 變形은 補火瀉土도 가능하며, 肝實症의 正形은 補金瀉火이지만 變形은 補金瀉水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變形을 편의상 “A變形”이라 하였다. 그리고, 井穴을 瀉할 때 榮穴을 대신 瀉하고, 井穴을 補할 때 合穴을 대신 補하는 變형을 “B變形”

이라고 하였다. 病症의 상황에 따라 自經에서의 穴位 이동이 있는 變形을 편의상 “B-1變形”이라고 하였으며, 病症의 상태에 따라 他經絡의 五俞穴 사이의 穴位 이동이 있는 變形을 편의상 “C變形”이라고 하였다²⁴⁾.

본 연구에서는 《畵岩鍼灸正傳》을 爲主로 하여 中風에 대한 畵岩鍼法을 정리하고, 이를《東醫寶鑑》과 《鍼灸大成》을 중심으로 한 傳統的 鍼灸治療와 比較 考察하였다.

1. 臟腑虛實辨證에 따라 五行補瀉鍼法 활용한 경우

心中(思慮中)은 “多汗, 怕驚, 顔色이 붉은 症狀”⁶⁾으로, 心勝格의 B-1變形에 해당하는 脾經의 經金穴인 商丘를 補하고, 心勝格의 A變形에 해당하는 肝經의 井木穴인 大敦을 瀉하였다. 心中은 思慮過多에 의한 氣滯가 病因이므로 心勝格으로써 心의 氣滯를 풀어주기 위함으로 思料된다.

脾中(喜中)은 “多汗, 身熱하며 顔色이 누런 症狀”⁶⁾으로, 脾虛로 인식하여 脾正格 중 心經의 榮火穴인 少府를 補하고 肝經의 井木穴인 大敦을 瀉하였다. 여기에서 脾正格 중 大都補, 隱白瀉의 自經補瀉를 除外한 것은 脾虛로 인한 中風의 狀態이므로 本臟腑의 瀉는 本臟腑를 弱화시키고, 本臟腑의 補는 本臟腑의 邪氣를 深化 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推측된다.

肺中(氣中)은 “多汗, 惡風하며 顔色이 흰 症狀”⁶⁾으로, 肺正格 중 脾經의 俞土穴인 太白을 補하고 心經의 榮火穴인 少府를 瀉하였다. 여기에서도 太淵補, 魚際瀉의 自經補瀉가 除去되었다. 여기에서 肺實이라 하였으나 “多汗, 惡風” 등의 증상을 볼 때 肺虛의 誤記가 아닌가 의심된다.

腎中(氣勞中)은 “多汗, 身冷하며 顔色이 검은 症狀”⁶⁾으로, 腎正格 중 肺經의 經金穴인 經渠를 補하고 脾經의 俞土穴인 太白을 瀉했다. 여기서도 復溜補, 太谿瀉의 自經補瀉가 除去되었다.

卒風不語는 “별안간 中風으로 言語障礙가 나타나는 症狀”⁶⁾으로 胃實로 보아, 三里迎, 二間補, 風池瀉, 陽谷瀉를 사용하였다. 三里迎은 胃勝格C變形에 속하고, 陽谷瀉는 胃勝格A變形에 속하며, 二間은 大腸經의 榮水穴로 大腸正格A變形에 해당된다. 즉, 實則補其官의 原理에 의하여 胃의 官인 大腸을 補한 것이다. 風池는 中風治療 特效穴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東醫寶鑑·風門》에서는 “人中, 天突, 湧泉, 神門, 支溝, 風府”⁷⁾를 사용하였고,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에서는 “少商, 前頂, 人中, 臈中, 合谷, 啞門”⁸⁾을 사용하여 熄風開竅의 效能이 있는 經穴들과 近位取穴을 兼하여 使用하였다.

角弓反張은 “별안간 中風으로 角弓反張이 나타나는 症狀”⁶⁾으로 膽實로 보아 三里迎, 陽谷補, 風池瀉, 束骨瀉를 使用하였다. 三里迎은 胃의 合土穴을 瀉한 것으로 小腸勝格에 해당되고 陽谷補는 小腸의 經火穴을 보한 것으로 胃正格에 해당되며, 束骨瀉는 膀胱의 俞木穴을 瀉한 것으로 膀胱勝格에 해당된다. 이는 膽勝格을 위한 것으로 勝格의 原理를 넓혀 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즉, 三里迎은 小腸勝格의 意味이니, 膽(木)의 子인 小腸(火)을 瀉함으로써 膽의 實한 氣를 小腸으로 誘導한 것으로 보이며, 陽谷補는 胃正格의 意味이니, 膽(木)實에 의한 木克土 作用으로 損傷되었을 胃를 補하는 意味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束骨瀉는 膀胱勝格의 意味인데, 이는 膀胱(水)을 瀉함으로써 水生木의 五行原理에 의한 膽(木)의 氣를 生하게 하는 作用을 억제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風池는 中風特效穴이다.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에서는 “中風角弓反張, 眼目盲視”에 百會, 十宣, 百勞 등의 應急穴과 合谷, 曲池 등의 大腸經穴을 爲主로 治療하고 行間, 陽陵泉 등의 肝, 膽經으로 治療하였다⁸⁾. 여기에서 大腸經과 膽經의 사용은 畵岩鍼法에서의 膽實에 대한 치료에 비유하면 金克木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口噤痰塞은 “입을 꼭 다물고 咽喉에 痰이 막혀서 曳鋸聲이 나는 症狀”⁶⁾으로 脾虛로 보아 脾正格 중 心經의 榮火穴인 少府瀉와, 肝經의 井木穴인 大敦瀉를 使用하였다. 口噤痰塞은 痰塞하여 口噤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痰을 잘 調治하여야 하므로 그 治法은 脾土를 튼튼하게 하고 脾濕을 말려 痰飲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少府는 火經의 火穴로 少府를 瀉함으로써 津液을 熏蒸하여 痰飲이 生成되는 것을 抑制한 것으로 思料된다. 金²²⁾은 大敦瀉 대신 脾正格의 A變形인 經渠補를 使用했다. 여기에서도 大都補, 隱白瀉의 自經補瀉는 除外되었다. 《東醫寶鑑·風門》에서는 “口噤”에 “人中, 頰車, 百會, 承漿, 合谷, 翳風, 灸亦可”라고 하였고,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에서는 中風口噤不并, 言語蹇澀에 地倉, 頰車, 人中, 合谷을, 中風口禁不開에 頰車, 人中, 百會, 承漿, 合谷을 使用하여 熄風開竅의 效能이 있는 經穴들과 近位取穴을 兼하여 使用하였다.

中膽(驚中)은 “眼目이 牽連하고 코를 골며 意識이 깨어나지 않고 顔色에 綠色이 나타나는 症狀”⁶⁾으로 膽虛로 인식하여 膽正格 중 膀胱經의 榮水穴인 通谷을 補하고, 大腸經의 井金穴인 商陽을 瀉하였다. 金²²⁾은 商陽瀉 대신 委中瀉를 使用하였다. 여기서도 俠谿補, 竅陰瀉의 自經補瀉는 除去되었다.

中胃(食中)는 “飲食이 내려가지 않고, 痰이 끓어 오르며, 淡黃色을 무하는 症狀”⁶⁾으로 胃虛로 認識하여 胃正格의 陽谷補, 臨泣瀉를 使用하였다. 여기에서도 解谿補, 陷谷瀉의 自經補瀉는 除外되었다.

半身不遂는 “言語를 더듬거리며(蹇涉) 半身不遂가 나타나는 症狀”⁶⁾으로 心虛로 인식하여 心正格의 大敦補와 함께 心勝格의 太白瀉를 使用하였다. 《東醫寶鑑·風門》에 偏枯를 “血氣가 虛해지는 것을 偏枯라 하는데 몸 한 쪽을 쓰지 못하는 半身不遂에 筋肉이 마르고 여위며, 뼈 사이가 아픈 것”⁷⁾이라 하였으니, 心이 血을 主하므로 心을 다스리기 爲함으로 思料된다. 勝格과 正格을 함께 쓴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研究가 必要한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風門》에서는 督脈의 百會, 顛會 등과 膽經의 風池, 肩髃, 環跳, 風市, 絕骨 등과 大腸經의 肩髃, 曲池, 合谷 등과 胃經의 三里 등을 사용하여,⁷⁾ 近位取穴과 膽經 및 大腸經 爲主의 選穴을 하였다.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과 《鍼灸大成·券九·治症總要》에서는 合谷, 足三里, 絕骨, 手三里, 腕骨, 行間, 風市, 三陰交, 崑崙, 肩髃, 曲池, 肩井, 上廉, 委中, 陽谿, 中渚, 陽輔, 丘墟, 陽陵泉, 百會, 肩井, 環跳, 委中을 사용하였는데⁸⁾, 특히 絕骨, 合谷, 風市, 足三里, 行間은 反復하여 言及되고 있다. 《鍼灸大成》에서는 전반적으로 《東醫寶鑑》과 유사하게 膽經과 大腸經 爲主로 治療하였다.

口眼喎斜는 “口眼이 비뚤어지고 눈을 깜짝이지 못하는 症狀”⁶⁾으로 肝實로 인식하여 肝勝格C變形의 然谷瀉와 더불어 心勝格의 心經合水穴인 少海를 補하였다. 心勝格의 少海을 쓴 理由는 實則瀉其子의 原理에 爲함이라 思料된다. 《東醫寶鑑·風門》에 “입과 눈이 다 비뚤어진 것은 胃土에 속한다, 風木이 약해지면 金이 억누르게 되므로 土가 制約을 적게 받는다”⁷⁾고 하였다. 이와 같은 原理에 爲해서 胃의 合土穴인 三里와 木經인 膽經의 完骨이 使用되었으니, 舍岩鍼法에서 木氣를 制約하기 爲하여 肝勝格을 使用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東醫寶鑑·風門》에서는 卒中風 喎斜 涎塞不省에 胃經의 地倉, 頰車, 三里 등과 膽經의 風市, 絕骨, 風池, 督

脈의 百會, 大椎 등을 爲主로 사용하였고, 口眼喎斜에는 頰車, 地倉으로 治療하였다⁷⁾. 口眼喎斜의 治法에서 東醫寶鑑과 舍岩鍼法은 같은 原理이지만 選穴에 있어서 舍岩鍼은 五行의인 接近으로 選穴을 한데 반해 東醫寶鑑은 效能爲主의 選穴을 하였다.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과 《鍼灸大成·券九·治症總要》에서는 督脈의 人中, 百會, 承漿, 大腸經의 合谷, 胃經의 頰車, 地倉, 瞳子膠, 肺經의 太淵, 그 밖에 十宣, 聽會, 翳風 등을 使用하였으며 胃經을 爲主로 하여 選穴하였다.

偏風口喎는 “左便이나 右便만 半身不遂하고 口眼喎斜하는 症狀”⁶⁾으로 肝虛로 認識하여 腕骨 瀉, 前谷 迎을 使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더 깊은 研究가 必要한 것으로 思料된다. 金²²⁾은 前谷瀉 대신에 前谷迎을 使用하였다.

2. 經驗的 鍼灸處方을 活用한 경우

肝中은 “갑작스런 怒, 또는 氣의 급작스런 逆上에 의해 생긴 氣滯에 의한 中風”⁶⁾으로 上實下虛, 陽(氣) 實 陰(血)虛 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舍岩鍼灸正傳》에서는 太衝補 合谷瀉를 사용하였다. 太衝과 合谷은 四關穴로 임상에서 多用되어온 經穴들이다. 太衝은 肝經의 原穴로서 陰(血)을 代表하며, 合谷은 大腸經의 原穴로서 陽(氣)를 代表한다. 이에 合谷을 瀉함으로써 氣滯를 풀어주면서 上實을 瀉하고, 太衝을 補함으로써 陰(血)虛와 下虛를 補하여 逆上한 氣를 下氣시키는 것으로 思料된다.

風懿는 《舍岩鍼灸正傳·中風門》에 “갑자기 卒倒하여 人事不省이 되어 角弓反張이 나타나는 것으로 十宣穴을 취한다”⁶⁾고 하였다. 十宣穴은 宜通寬開竅하는 作用에 의해 舍岩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침구치료에서도 實證에 의한 中風에서 多用하였다. 《鍼灸大成·券八·續增治法》⁸⁾에서는 “凡初中風跌倒 卒暴昏沈 痰涎壅滯 不省人事 牙關緊閉 藥水不下 急以三稜針 刺手十指十二井穴 當去惡血. 又治一切暴死惡候 不省人事 及絞腸痧 乃起死回生妙訣. 少商二穴 商陽二穴 中衝二穴 關衝二穴 少衝二穴 少澤二穴”이라 하여 十二井穴을 이용하여 治療하고 있다. 이와 같이 舍岩鍼法과 傳統的 鍼法 모두 中風의 實證 急性期에 十二井穴이나 十宣穴을 이용하여 通寬開竅하는 治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風痲(中臟)는 《舍岩鍼灸正傳·中風門》에 “人事不省하고 가래와 늘침이 咽喉를 막아 咽喉에서 툭

Table 1. 舍岩鍼灸의 病症 및 病因, 治療穴과 이에 따른 特性, 考察, 類型

病症	舍岩鍼灸正傳		東醫寶鑑	鍼灸大成
	鍼處方類型	治療穴		
風懿(卒中)	經驗方	十宣穴		急以三稜針 手十指十二井穴
風非(中臟)	經驗方	關元 瀉, 氣海 瀉 又方 關元 灸 1000壯	氣海, 關元에 200-300壯 灸	
肝中(怒中)	肝實 經驗方	太衝 補 合谷 瀉		
心中(思慮中)	心實 心勝格A變形	商丘 補 大敦 瀉		
脾中(喜中)	脾虛 自經補瀉 除去	少府 補 大敦 瀉		
肺中(氣中)	肺實 自經補瀉 除去	太白 補 少府 瀉		
腎中(氣勞中)	腎虛 自經補瀉 除去	經渠 補 太白 瀉		
卒風不語	胃實 胃勝格 變形	三里 迎後正, 二間 補 風池 瀉, 陽谷 瀉	人中, 天突, 湧泉, 神 門, 支溝, 風府	少商, 前頂, 人中, 臑中, 合谷, 啞門
角弓反張	膽實 膽勝格 擴大	三里 迎, 陽谷 補 風池 瀉, 束骨 瀉		百會, 百勞, 合谷, 曲池, 行間, 十宣, 陽陵泉
眼戴上反不能 言語	經驗方	身柱(三椎), 神道(五椎) 灸各七壯補, 三里瀉	灸第二椎骨上各七壯	
津液流涎 (流涎如浪)	經驗方	八邪鍼 又方 止涎穴		
口噤 痰塞	脾虛 脾正格 A變形	風池迎後正 少府 補, 大敦 瀉		
偏枯(中腑)	經驗方	太衝 補 中腕 瀉, 風市 瀉	大接經 從陽引陰, 大 接經 從陰引陽	絕骨, 太淵, 曲池, 肩髃, 三里, 崑崙
中膽(驚中)	膽虛 膽正格	通谷 補 商陽 瀉		
中胃(食中)	胃虛 自經補瀉 除去	陽谷 補 臨泣 瀉		
半身不遂	心虛 心正格 擴大	大敦 補 太白 瀉	百會, 顛會, 風池, 肩 髃, 曲池, 合谷, 環 跳, 風市, 三里, 絕骨	合谷, 足三里, 絕骨, 手三里, 腕骨, 行間, 風市, 三陰交, 崑 崙, 肩髃, 曲池, 肩井, 上廉, 委 中, 陽谿, 中渚, 陽輔, 丘墟, 陽 陵泉
口眼喎斜	肝實 肝勝格 變形과 心正格	三里迎 完骨正 心海補 然谷瀉	聽會, 頰車, 地倉, 百 會, 肩髃, 曲池, 風 市, 三里, 絕骨, 耳前 髮際, 大椎, 風池	人中, 百會, 承漿, 頰車, 地倉, 瞳子膠, 瞳子膠 合谷, 太淵, 十 宣, 聽會, 翳風
偏風口喎	肝虛 經驗方	勞宮補 照海, 前谷, 完骨瀉		

켜는 소리처럼 그렇거리고(曳鋸聲), 四肢不遂하며 身無疼痛, 言語蹇涉하는 症으로 關元, 氣海를 瀉하거나 關元 1000壯 灸한다⁶⁾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中風痰盛 聲如曳鋸에 氣海, 關元에 200-300壯 灸하라⁷⁾”고 하여 舍岩鍼法과 유사한 選穴을 볼 수 있다. 關元, 氣海는 氣의 源泉으로 全身의 氣를 主管한다. 風痲는 急性病人 風懿와는 달리 慢性病이기에 關元, 氣海를 사용하여 全身의 氣를 調節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舍岩鍼灸正傳》에서 關元, 氣海에 瀉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思料된다.

眼戴上反不能言語는 “별안간 中風으로 눈을 치켜 뜨고 말을 못하는 症狀⁶⁾”으로 “身柱(三椎), 神道(五椎), 灸各七壯補. 三里瀉. 各柱如棗核大”를 사용하였다. 《東醫寶鑑·風門》에서는 “中風 目戴上 不能視”에 “灸第二椎骨上各七壯 一齊下火 立愈⁷⁾”한다고 하여 舍岩鍼法과 내용이 類似하다.

流涎如浪은 “中風으로 粘性性 唾液을 줄줄 흘리는 증상⁶⁾”으로 八邪鍼 또는 止涎穴을 사용하였다.

偏枯(中腑)는 “中風의 表證으로서 半身不遂, 口眼喎斜하고 言語가 不變하며 痛症을 自覺하는 症狀⁶⁾”으로 太衝補, 中腕, 風市瀉를 사용하였다. 《東醫寶鑑·風門》에서는 “大接經 從陽引陰, 大接經 從陰引陽⁷⁾”의 法으로 治療하였고, 《鍼灸大成·券五·八脈圖並治症穴》에서는 “中風偏枯, 疼痛無時에 絕骨, 太淵, 曲池, 肩髃, 三里, 崑崙⁸⁾을 사용하였다.

以上에서 《舍岩鍼灸正傳》에 言及된 中風의 鍼灸治療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東醫寶鑑》및 《鍼灸大成》과 비교한 결과, 中風治療에 대한 舍岩鍼法과 既存의 鍼灸治療에는 몇 가지 差異點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東醫寶鑑》에서는 脈을 爲 主로 하고 있으며, 사용 穴位로는 任, 督脈과 膽經, 大腸經, 胃經에 속하는 百會, 肩髃, 曲池, 風市, 三里, 絕骨, 合谷, 風池 등이 가장 많았고, 近位取穴을 重要視하였다. 《鍼灸大成》에서의 사용 穴位로는 足三里, 合谷, 百會, 曲池, 絕骨, 風市, 地倉, 頰車, 人中, 陽陵泉, 中衝 등이 가장 많았고, 이 또한 近位取穴을 重要視하였다. 中風의 전통적인 鍼灸治療에서는, 程國彭의 《醫學心悟》에서 “脫者 口張心絕 眼合肝絕 手撒脾絕 聲如鼻干肺絕 遺尿腎絕汗出如洙¹⁹⁾”라 하여, 中風의 五臟絶候를 提示하기는 하였으나 鍼灸治療에 적극 활용되거나 諸 症狀에 전반적으로 臟腑辨證을 활용하지는 않았으며, 肝陽化風 등 약간의 臟腑辨證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대개 火熱, 濕痰, 瘀血 등의

除去를 治療目的으로 하여 選穴하였으며 近位取穴을 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하여 舍岩鍼法에서는 대부분 臟腑辨證을 根據로 治法을 提示하고 있다. 즉, 肝中(怒中), 心中(思慮中), 脾中(喜中), 肺中(氣中), 腎中(氣勞中), 中膽(驚中), 中胃(食中) 등 외에도 卒風不語는 胃實, 角弓反張은 膽實, 口噤痰塞은 脾虛, 半身不遂는 心虛, 口眼喎斜와 偏風口喎는 肝實로 각각 인식하여 그에 따라 該當 經絡의 正格, 勝格 및 變形을 活用하여 治療하였다. 舍岩鍼法은 五行의 原理를 바탕으로 한 自經補瀉 및 他經補瀉로 이루어지나, 본 研究에서는 自經補瀉를 制外하고 他經補瀉만을 사용한 境遇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經驗方도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中風 뿐 아니라 기타 다른 病症에 대해서도 舍岩鍼法과 기존의 鍼灸治療를 比較考察함으로써 舍岩鍼法의 운용에 대한 理解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V. 結 論

中風의 鍼灸治療에 대하여 舍岩鍼法과 《東醫寶鑑》및 《鍼灸大成》의 鍼灸治療를 비교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醫寶鑑》및 《鍼灸大成》을 爲 主로 한 既存의 中風에 대한 鍼灸治療에서는 臟腑와 經絡의 虛實辨證에 따른 치료보다는 火熱, 濕痰, 瘀血 등 邪氣의 除去를 위주로 하여 任, 督脈과 膽經, 大腸經, 胃經 등의 經穴을 多用하였고, 近位取穴을 重要視하였으며, 脈을 頻用하였다.
2. 《舍岩針灸正傳》에서는 中風의 症狀을 21種으로 分類하고 各 症狀에 대하여 臟腑의 虛實을 判斷하여 治法을 정하여 이에 따라 해당 臟腑 및 經絡에 대한 補瀉를 施行하였다.
3. 《舍岩鍼灸正傳》의 中風治療에서는 五行補瀉 중 本經補瀉를 制外하고 他經補瀉만을 사용한 境遇가 많았다.
4. 《舍岩鍼灸正傳》의 中風治療에서는 經驗的 鍼處方을 多用하였다.

VI. 참고문헌

1. 김영석. 임상중풍학. 서울 : 서원당. 1997 : 307-8.
2. 舍岩道人. 舍岩五行鍼解說. 서울 : 陰陽脈診出版社. 1983 : 17-8.
3. 주현욱. 舍岩鍼法. 고양 : 大星醫學社. 2005 : 73-4.
4. 안병수 외. 舍岩鍼法 중 心勝格에 의한 火病 2例에 대한 증례보고.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2 ; 제11권 제1호 : 151-62.
5. 박영수 외. 뇌졸중 환자에서 舍岩鍼의 血壓降下에 대한 고찰. 大韓針灸學會誌. 2004 ; 제21권 제4호 : 217-23.
6. 黃延學. 舍岩鍼灸正傳. 대구 : 石林出版社. 1996 : 8-11.
7. 許浚. 東醫寶鑑. 서울 : 法仁文化社. 1992 : 99, 125, 306, 311, 318, 323, 330, 339, 728, 757, 759, 760, 948, 949, 953, 960-1, 1330.
8.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臺北 : 啓業書局. 1976 : 674-675, 1126, 1143-1153.
9. 王冰. 黃帝內經. 서울 : 高文社. 1971 : 133-5.
10. 李鍾馨外.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 醫聖堂. 2001 : 64, 435-8, 497-500.
1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 大星文化社. 1984 : 113-7.
12.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 8-16.
13.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 成輔社. 1976 : 37-41.
14.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 大星文化社. 1991 : 606-7.
15.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 大星文化社. 1993 : 47-50.
16. 龔延賢. 萬病回春. 서울 : 癸丑文化社. 1977 : 107-16.
17. 李梴. 編主醫學入門. 서울 : 醫聖堂. 1994 : 713.
18.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 一中社. 1993 : 1-4.
19.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 鼎談. 2002 : 132.
20.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서울 : 鼎談. 1998 : 41-8.
21. 趙世衡. 舍岩鍼法體系의 研究. 서울 : 成輔社. 1986 : 32-3.
22. 金達鎬. 圖解校勘舍岩道人鍼法. 부산 : 소장. 2002 : 8-17, 33-4.